국내 코인투자자 558만명…'1억 이상' 보유 10만명 육박

10억원 이상도 4천명…20대 이하 134만명·30~40대 322만명 달해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 주식의 4.4배…투자 늘어남에 보호대책 필요
금융당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위험 코인·자금세탁 단속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국내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1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가까이가 1000만원 미만 투자…60대 이상도 23만명=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등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보유자는 9만4000명으로 전체의 1.7%였다.

실제 이용자는 단일 투자자가 복수의 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고 1명으로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자가 9만명이었으며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4000명이나 됐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보유자는 73만명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163만명, 100만원 이하 보유자는 276만명으로 각각 전체의 29%와 49%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보유는 남성이 374만명으로 여성(184만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20대 이하 가상자산 보유자가 전체의 24%인 134만명에 달한 점이다.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80만명과 23만명이었다. 주력 보유층은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로 각각 174만명과 148만명이었다.

◇해외보다 위험성 큰 코인 거래 비중 훨씬 높아=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623종이다. 이들 종목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은 65%로 유가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해 증시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원화 마켓은 27%, 코인 마켓은 9%에 불과해 전 세계 평균 59%와 큰 격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일부 국내 거래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큰 단독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높은 취급률을 보여 이용자들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클 수 있다.

◇젊은층 투자 늘어나…투자자 보호대책 필요=금융권 관계자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은행 예금 또는 펀드 투자가 아닌 가상화폐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는 투자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젊은 층의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보호대책도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스테이블 코인 등 위험성이 있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페깅)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이 됐던 한국산 코인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루나는 테라의 자매 코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도 벌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해 이미 관련 검사를 마쳤고 다른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에 현장 실사를 통해 회원 수, 거래 내역, 연령대별 거래 내역, 월별 매출, 수수료 현황 등을 모두 확인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세탁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2곳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추가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연합뉴스

무역협회·전남테크노파크 중기 글로벌 역량강화 포럼

미·중 전략경쟁 등 강연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전남테크노파크는 19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광주전남 무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 동부권 소재 기업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전환, 우리 기업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권재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미-중 패권 갈등은 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주요국들도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면서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 우리 수출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첨단소재, 생물다양성 보전·생태문화확산 앞장선다

국립생태원과 업무 협약 체결
'전주물꼬리풀' 보전사업 추진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18일 국립생태원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서에는 효성첨단소재와 국립생태원이 서로 협업해 생태환경 보전과 자연보호 문화 확산 활동들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첫 협력 사업으로 전주시와 함께 '전주물꼬리풀' 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인 '전주물꼬리풀'을 전주지역에 식재하는 내용이다.

1912년 처음 발견된 전주의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진 '전주물꼬리풀'은 환경파괴로 자생지가 사라져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전주에 이식해 복원을 진행했다.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가 복원사업에 발벗고 나선 이유다.

이건종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생태 복원의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국립생태원과 효성첨단소재가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효성첨단소재와 국립생태원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경영전략실장, 이건종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이은희 국립생태원 경영관리본부장, 김웅식 국립생태원 생태교육협력실장.

또 이날 효성첨단소재 임직원들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을 맞아 인천 영종도 용유해변을 찾아 반려해변 정화활동도 펼쳤다. 올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반려해변 활동 중 첫 사례다.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된 민간주도 사업인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일정 구간의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돌보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임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한강 플로깅, 반려해변 정화활동, 멸종위기종 살리기, 생태교란종 제거 등 다양한 CSR활동들을 펼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루나·테라 피해자들 뭉쳤다…권도형 대표 고소

공동창업자 신현성도 고발
이자 수익 보장 등 유사수신 위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LKB는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소·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이래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루나와 UST는 일주일 사이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급락했고,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특이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UST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자 알고리즘이 작동 불능 사태에 빠져 UST가 1달러 미만으로 추락했고, 테라폼랩스가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냈으나 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2.34 (-33.64)
↓	코스닥	863.80 (-7.77)
↓	금리 (국고채 3년)	3.046 (-0.023)
↑	환율 (USD)	1277.70 (+11.10)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